



Yo-Yo Ma & Kathryn Stott

## 오랜 우정이 들려주는 음악의 더욱 깊은 향

이맘 때쯤이면 우리의 귀가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는 소리들이 몇 있다. 요요 마는 그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마련인 친숙한 이름. 11월 열리는 무대에서는 그의 오랜 벗인 캐서린 스톡과 함께한다고 하니 첼로의 향이 에스프레소보다 더욱 깊고 그윽하겠다. 에디터 이승민 자료 제공 영앤원섬(02-720-3933)

“첼로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에 비해 레퍼토리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독주자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다. 현존하는 첼리스트 가운데 로스트로포비치와 요요 마 정도가 첼로 독주자로 활동해도 충분히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아티스트다.” \_첼리스트 야노슈 스타커.

이런 말을 남기며 야노슈 스타커는 그 나머지 첼리스트들이 대부분 ‘교수’ 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그러한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거나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고 순수하게 ‘연주만’ 하면서 살아도 될 유일한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요요 마라는 얘기.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한 극찬은 없다. 최고의 연주니, 정상의 실력이니 하는 뻔한 수식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니까. 2005년 그의 무대를 통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감동 받았던 이들은 더욱 이번 공연을 기다렸을 것이다.

11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특별히 그의 오랜 벗이자 음악적 교감자인 피아니스트 캐서린 스톡이 함께한다. 이번 듀오 리사이틀에서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쇼스타코비치의 유일한 첼로 소나타인 D단조 소나타, 그리고 프랑크 소나타 A장조 등 첼로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레퍼토리로 선택했다.

요요 마와 캐서린 스톡은 2003년에 <파리-라 벨 에포크> 음반을 녹음하며 포레, 생상 등의 프랑스 음악들을 함께 탐구했다. 이번 내한 무대에서도 두 사람은 세련된 색채감으로 유명한 프랑크 소나타 A장조를 통해 두 사람만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 작품은 원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로 만들어졌지만, 첼로와 피아노용으로도 자주 연주되며 사랑 받고 있는 곡.

그밖에도 이번 연주회에서는 두 곡의 남미 음악을 선보인다. 탱고의 거장 피아졸라가 생전의 마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 썼던 첼로를 위한 탱고 작품 ‘그랜드 탱고’가 연주되며, 또 다른 곡으로는 요요 마의 그래미상 수상 음반인 <오브리기도 브라질>에도 수록됐던 ‘은혼식 & 네 개의 노래’가 그것. 특히 이 작품은 브라질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사람인 에그베르투 지스몬치가 작곡한 ‘은혼식’이란 작품에 시인 제라우두 카르네이루가 가사를 쓴 또 다른 네 개의 노래를 결합시켜 하나의 곡처럼 연주한 작품으로 대가들의 멋진 즉흥 연주 솜씨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요요 마 스스로 “자신보다 훨씬 음악적 모험심이 많고 두려움이 없다”고 평한 캐서린 스톡과 어떠한 호흡을 보여줄지 자못 기대된다. ☺